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7. 24(금)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미래세대의 주역 청년들에게 말하고!! 청년들에게 듣는다!!** 7.24일,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청년 톡톡 토크콘서트’ 개최	새마을봉사과	
② **경북도 싱크탱크, 통합신공항 연계 발전전략 구상**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개최, 미래발전전략 논의 대구경북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소보’ 유치신청 촉구 분과위원장들, 군위군 지원 인센티브 명문화 적극 추진 건의	정책기획관	
③ **경북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에 국비 19억 확보** 2021년 RPC분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도내 5개소 최종선정 건조저장시설 1개소 30억원, 집진시설 4개소 17.5억원 투자	친환경농업과	
④ **잦은 강우, 고온다습 환경… 고추 탄저병 각별히 주의** 경북농업기술원, 지역 고추 재배지에 탄저병 발생 우려 철저한 방제 당부	영양고추 연구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24(금)】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작 성 자	과 장	남 창 호	
			팀 장	조영목	주무관 정은희
		연 락 처	054-880-2884		

미래세대의 주역 청년들에게 말하고!! 청년들에게 듣는다!!

- 7.24일,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청년 톡톡 토크콘서트’ 개최 -

경상북도는 2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지역의 청년·대학생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톡톡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의 새마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새마을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인기MC 김현욱씨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으며, 1부 청년톡톡 토크콘서트, 인기가수의 문화공연, 그리고 2부 유명 역사학자 최태성 선생님의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재학 중인 22개국 대학원생 및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 시군 청년 새마을지도자 및 Y-SMU 포럼 회원, 새마을세계화재단 글로벌 청년지도자, 새마을해외봉사단 및 도청 청년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1부 ‘청년톡톡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역사학자 최태성, 가나 출신 방송인 샘오취리,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생이 참여해 50주년을 맞은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새마을운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청년들의 취업, 진로, 결혼 등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생인 가봉 출신 시메레즈이든씨가 패널로 참여해 외국 유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새마을운동에 대한 생각과 한국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유명 역사학자 최태성 선생님의 강연이 이어졌다. 새마을 전문가가 아닌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새마을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참가자들과 특강에 대한 토론을 펼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과거 새마을운동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코로나19 등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새마을 정신을 통해서 잘 이겨내자”고 말하고, “도지사로서 경북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청년들에게 말하고 청년들에게 듣는다”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행사개요

○ 일　　시 : 2020. 7. 24(금) 14:00 ~ 17:00

○ 장　　소 : 도청 동락관

○ 주　　관 : TBC

○ 참　　석 : 200명 정도

-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생 및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54명)
- 시군 청년 새마을지도자, Y-SMU 포럼 회원(105명)
- 새마을 세계화재단 글로벌 청년지도자 및 새마을봉사단(4명)
- 도청 청년 직원 등(50명 정도)

○ 주요내용

<1부> 청년톡톡 토크콘서트　　<사회자 : 김현욱>

- 지사님, 패널(최태성, 샘오취리, 방송인 1명, 새마을대학원생 1명)
- 새마을 50주년 의미, 코로나19 극복과정, 경제위기 극복 등
- 패널과 객석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진행

<2부> 유명 역사학자 초청 강연 및 토론　　<강사 : 최태성>

- 유명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본 새마을운동
- 게스트 : 김현욱, 샘오취리, 방송인 1명, 새마을대학원생 1명
- 특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패널/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양방향 특강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5:30	90′	○ (1부) 청년톡톡 토크콘서트	지사님, 패널
15:30 ~ 16:00	30′	○ 문화공연 및 무대세트 전환	인기가수(신현희)
16:00 ~ 17:00	60′	○ (2부) 유명역사학자 강연 및 토론	강사(최태성) 및 전체 참가자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24(금)】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 성 자	정책기획관	정 성 현	
			팀 장	안성렬	담당자	금두연
		연 락 처	054-880-2115		

경북도 싱크탱크, 통합신공항 연계 발전전략 구상

-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개최, 미래발전전략 논의 -
- 대구경북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소보’ 유치신청 촉구 -
- 분과위원장들, 군위군 지원 인센티브 명문화 적극 추진 건의 -

경상북도는 7월 24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하여 도 주요간부들과 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철영 대구대 교수, 곽지영 포스텍 교수 그리고 10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민선 7기 핵심정책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현장과의 소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월에 출범한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영업자, 기업인, 농업인, 시민단체·학계 인사 등 각계의 현장 전문가 143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특히 다른 위원회에 비해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높아 젊고 역동적인 시각으로 경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경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등 도정 핵심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이번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과 분과위원회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경북의 미래 핵심성장 동력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분과위원장들은 도정 전반에 대한 총괄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중점 자문분야 설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공유, 비대면 회의 활성화를 통한 상시 자문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은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가 제안하고 있는 군위군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 군위군이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교단체 원로, 여성·청년 등 지역대표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군위군 지원 인센티브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최철영 교수는 “그간 위원회 차원에서도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다양한 발전전략들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통합신공항 시대 경북의 미래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 등 공항 신도시 건설 △도로, 철도 등 통합신공항연계 인프라 구축 △스마트 농업, 항공산업, 관광산업 등 공항연계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항경제권 연계 외국인 전용특구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그간 도정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로 도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경북의 미래를 위한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소보’ 유치신청을 위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위군민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군위군이 대구경북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24(금)】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 성 자	과 장	조 환 철	
			담 당	류한영	주무관 김홍웅
		연 락 처	054-880-3381		

경북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에 국비 19억 확보

- 2021년 RPC분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도내 5개소 최종선정 -
- 건조·저장시설 1개소 30억원, 집진시설 4개소 17.5억원 투자-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9억원을 확보하고 지역 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47억5천만원(국비 19, 지방비 13, 자부담 15.5)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시도, 29개소 선정(**경북 5**, 경기 3, 강원 3, 충남 2, 전북 6, 전남 6, 경남4)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은 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과 벼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거점별 대표 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쌀의 품질유지 및 수확기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을 대상으로 RPC사업실적, 사업계획, 자부담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도내 4개 업체를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도내업체는 예천군의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문경시의 ‘동문경농협RPC’, 의성군의 ‘안계합동RPC’,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두 개 부문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의 세부사업인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는 총사업비 30억원

(국비 12, 지방비 6, 기타 12)을 투입해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설치해 수확기 농가의 벼 매입기능을 확충하고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미질향상, 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집진시설개 보수사업’에 선정된 동문경농협RPC, 의성군 안계합동RPC,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는 RPC의 산물벼 반입, 건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전체 17.5억원(국비 7, 지방비 7, 자부담 3.5)을 투입해 RPC 종사인력의 건강 유지와 민원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 금년도 쌀값이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벼재배 농업인들이 판로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24(금)】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		
		작성자	소 장	원종건	
			팀 장	김찬용	담당자 권오훈
		연 락 처	054-683-1691		

잦은 강우, 고온다습 환경… 고추 탄저병 각별히 주의

- 경북농업기술원, 지역 고추 재배지에 탄저병 발생 우려 철저한 방제 당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에서는 병해충예보시스템의 고추 재배지 탄저병 발생예보와 실제 탄저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통한 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빗방울에 의해 병원균이 튀어 확산되며, 8월 수확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올해 강우가 잦아 발병시기가 예년에 비해 앞당겨 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가 오는 횟수가 많고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고추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추 탄저병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저병이 발생한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적용약제를 살포해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한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병해충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추 탄저병 발생이 예보됨에 따라 7월 10일과 18일에 2회에 걸쳐 농가용 앱을 통해 발생예측 자료를 즉시 전송했다.

영양고추연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추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찰하면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농가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고추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별첨〉